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금융·일자리·탄소중립 등 미래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2회 '지니포럼'이 29일 전주 라한 호텔에서 개막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사회적 가치복원 위한 글로벌 금융경제 강화' 제2회 지니포럼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 찾는다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일원서

지구촌 공동번영 방안 마련 위해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2050 탄소중립 기후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전북도와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가 9월 30일과 10월 1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제2회 '지니포럼(GENIE(Global Emerging Network In Economy)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다보스 포럼인 '지니포럼'은 전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개최하는 글로벌 경제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가치복원을 위한 글로벌 금융경제 강화'라는 주제로 '이머징 마켓 투자', 'Money for Social Good', '탄소중립과 금융산업', 미래형 스타트업 발굴 등 대한민국의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지구촌 공동번영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지니포럼을 앞두고, 2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막식을 개최하며 그 서막을 알렸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황민순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 회장, 하재희 월드컬처오픈 단장 등 주관기관 기관장과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로세로 주한콜롬비아 대사,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서한국 전북은행장 등 관계기관장들이 참석해 지니포럼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상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지구촌의 혁신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헌신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겸 IS그룹 회장이 '지니어워즈'를 수상했다

이어, 30일 오전 9시 같은 장소에서 '공동번영을 위한 이머징 마켓투자'라는 주제로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가 개최된다

블룸버그 통신의 설립자이자 세계보건기구 글로벌대사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메리 사피로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진 에릭 살라타 Baring Private Equity Asia 대표의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금융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한다

또, 세션별 토론을 통해 아시아 신흥시장 투자 시 투자위험과 기회 등 아시아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과 지역특화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같은 날, 전주 왕의지빌 훈민정음홀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환경 세미나를 진행한다

크리스티고 Axa Core Investments 최고투자책임자, 마크 터섹 전 Goldman Sachs 전무가 기조연설을 하게 되며,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ESG 경영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산업의 연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과 10월 1일 오후 2시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스토리지 데모데이가 준비돼 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황민순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장의 개최로 문을 여는 스토리지 데모데이에는 이윤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의 축사와 프랑스 골지의 투자사인 La French Tech의 솔로몬 무 서울대표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윤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에서 발간한 전국의 우수 스타트업 14개사가 참여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의 우수 피칭을 만나볼 수 있다

이날 혁신적이고 잠재력이 높은 우수 스타트업에게 총 9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계획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소셜과 금융의 만남,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아이디어챌린지, 글로벌토크, 스페셜 토크 등 세 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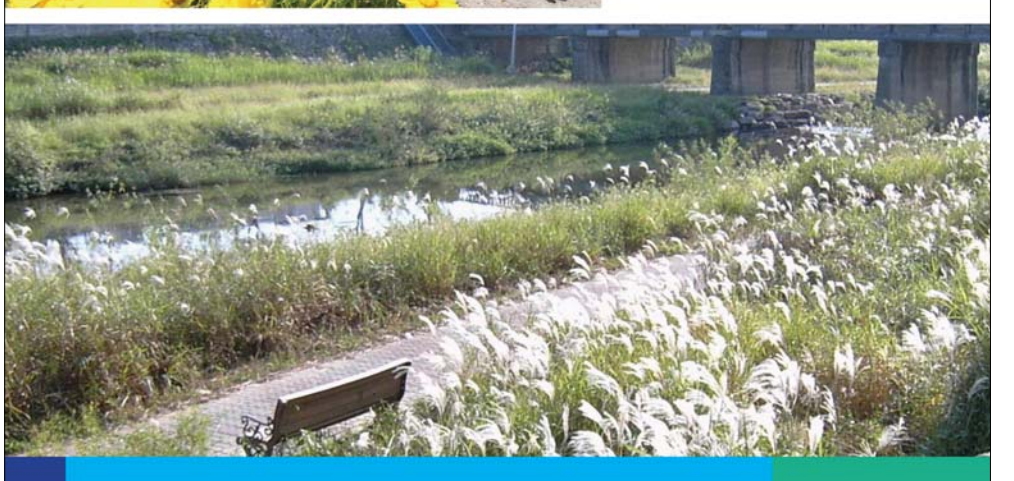
10월 1일 10시 라한호텔에서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아이디어 챌린지 본선 진출 10개 팀의 피칭과 우수자 시상식을 예정이며, 소셜임팩트 게임개발 기업인 One Earth Rising의 안 로스너 대표가 Money for Social Good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소셜과 금융의 만남,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철학과 경험을 나누는 스페셜 토크 총 8편을 지니포럼 공식 유튜브와 월드컬처오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라한호텔 온고를 홀에서 ESG 시대의 대체투자라는

주제로 마련한 전주 금융발전포럼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경영이념과 투자가치 기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라한호텔 와딩스에서는 All about 전북 주제로 새만금 산업단지, 2023세계 잼버리, 전북도 유명관광지 등을 소개하며, 포럼에 참석하는 금융·경제 전문가, 기업인들에게 지역에 대한 투자 관심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지구촌 경제 네트워크 구축 헌신 공로 인정

구자열 IS그룹 회장, '지니어워즈' 수상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겸 IS그룹 회장이 지구촌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니어워즈'를 수상했다

전북도와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는 2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2회 지니포럼(GENIE Forum) 개막식에서 새로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온 구자열 회장을 '지니어워즈' 수상자로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구자열 회장은 전담조직을 마련해 친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ESG경영을 실천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 지원으로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 회장은 또한, ESG 경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비즈니스에 집중 투자하고, 전담조직 신설, 비전·전략



'지니어워즈'를 수상받은 구자열 회장

수립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적 전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 회장은 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겸임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백신 점종을 지원하는 등 민간협력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 '지니어워즈'를 수상한 구자열 회장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발돋움 하는 전북도에서 수상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지구촌 상생과 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를 대표해 시상자로 나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구촌 상생을 위해 헌신하는 더 많은 글로벌 혁신가들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지니어워즈에서 이런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널리 알릴 예정"이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지역주도 성장 모범 사례"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사회적 가치 회복 실마리 제시"
송하진 도지사 "전북 금융 경쟁력 향상 이바지하길"

"지니포럼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합심해 만든 국제협력 플랫폼으로서 지역주도 성장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김사열 위원장



송하진 도지사

결을 찾을 수 있다"며 "지니포럼이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지역민들이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동 번영의 지구를 미래로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2회 지니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의 경제성장을 돕는 지속 가능한 국제네트워크로서 지니포럼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주도 성장전략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이런 포럼의 조직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이번 지니포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국제관계를 회복하고,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연대와 상생의 정신으로 인류의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는 염원을 담았다"고 올해 포럼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경제 금융, 기후환경, 미래산업, 공공성, 지역혁신 등 지구적 과제는 우리 모두의 공동 대응을 통해서만 해결

논의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이날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속에서 전북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의 산물이 지니포럼"이라며 "지니포럼을 통해 글로벌 금융도시 전북과 지역혁신 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에 지역이 응전하려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주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니포럼이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공동 대응하는 글로벌협력네트워크로서 전북 금융과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